



理 事 長 吳 琳 根

火災란 일단 발생하면 귀중한 인명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그 對象物을 形體도 안 남게 하는 가장 무서운 災難中의 하나입니다.

火災는 「호텔」을 삼키고 「아파트」를 태우고, 工場을 태우고, 百貨店을 불사르고, 또한 많은 大小建物を 태워버리며 아울러 많은 人命被害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火災를 예방하고 또 이에 대처 해야하는 方法이 切實이 要求되는 것입니다.

機會있을 때 마다 지적되는 바이지만 火災에 대한 最善策은 “豫防”입니다. 이 “豫防”은 말로만 하는 예방이 아니라, 우리 生活속에서 直接 實行으로 옮기는 “習慣性豫防”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불이 發生할 경우에는 그 初期에 재빨리 鎮火할 수 있어야 합니다.

“習慣性豫防” 다시 말하면 人間이 가지고 있는 많은 “버릇” 중의 하나로 豫防하는 習慣을 길러 火災의 發生을 막아야 할 것이며, 不可抗力의 火災發生에 對備하여서는 평소에 철저한 訓練을 쌓아두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今年 10月末 現在 全國에서는 3,341件의 火災가 發生하여 184명이 死亡하고 610名の 부상자를 냈으며, 30億2千2百萬원에 달하는 財産被害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 해의 같은 期間에 비해 件數로서는 약 13%가 늘어났고, 人命被害는 무려 68%가 늘어난 셈입니다.

人命被害가 이처럼 늘어난 理由는 文明의 利器가 가져다 준 각종 可燃性物質 등에 基因하고 있지만 그 보다 먼저 평소에 豫防과 消防訓練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한데에 더 큰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계상에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全體火災의 67%가 人間の 不注意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잠깐의 放心, 잠깐의 不注意가 얼마나 무서운 災害을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 모두 省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政府當局이나 本韓國火災保險協會는 불조심의 生活化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훌륭한 啓蒙과 對處 方法을 展開한다 해도 국민 모두가 이에 積極參與하지 않을 경우 實效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거듭 強調됩니다만 불조심을 習慣化하는 데 국민 모두의 參與가 아쉬운 때입니다. 國民들이 政府當局의 消防政策이나 本韓國火災保險協會의 火災豫防業務에 積極協調하여 주는 걸만이 火災의 發生을 줄이는 길이며, 이는 곧 국가와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